

# 제약·바이오 연봉 톱은 삼바... 평균 1억700만 원

### 임원도 압도적... 작년 45% 오른 19억300만 원 셀트리온 1억300만 원·유한양행 9700만 원 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임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한양행은 업계에서 가장 긴 근속 연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기업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매출 1조 원을 넘긴 8개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 회사는 등기임원을 제외한 4792명의 임직원에게 1인당 평균 1억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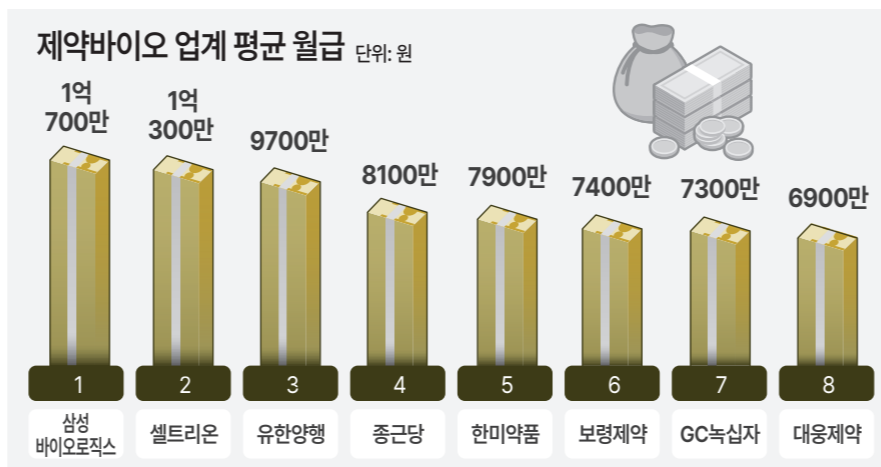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봉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500만원에서 출발해 △2020년 8300만 원 △2021년 7900만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2년 9200만 원 △2023년 99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연봉이 다소 주춤했지만 당시에도 신규 채용을 확대하여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주요 기업들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셀트리온 1억300만 원 △유한양행 9700만 원 △중근당 8100만 원 △한미약품 7900만 원 △보령제약 7400만 원 △GC녹십자 7300만 원 △대웅제약 6900만 원으로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

임원 급여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이었다. 이사·감사 7명의 평균 연봉은 19억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2위는 셀트리온 이었다. 이사·감사 12명의 평균 급여는 9억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4% 상승한 수치다. 인상을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기업들의 작년 임원 평균 연봉은 △보령 3억8900만 원 △GC녹십자 3억 5400만 원 △유한양행 3억2900만 원 △대웅제약 2억2300만 원 △중근당 2억5000만 원 △한미약품 1억9300만 원 이었다. 이 가운데 전년 대비 급여가 오른 기업은 △한미약품(16.3%) △유한양행(15%) △중근당(14.5%)이었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8개 기업 가운데 가장 길었던 기업은 유한양행으로 12년 7

개월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평균 10년 이상을 기록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중근당 9년 6개월 △한미약품 8년 5개월 △보령 6년 4개월 △대웅제약 6년 3개월 △셀트리온 5년 9개월 △삼성바이오로직스 5년 2개월 순이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연구개발(R&D)과 영업·마케팅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기업들은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

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유한양행은 가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직원 자녀 1명당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학자금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도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고 있다. 대학 이후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시에도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2000년대에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지만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숙사 제공은 물론 어린이집·식대지원·전용 병원 운영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복지 혜택을 모두 합치면 연간 최대 1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와 복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며 “단기적인 연봉 수준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 개발 지원과 조직 문화가 우수 인재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 조정은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 옷부터 외식까지 '작은 소비' 위축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옷·화장품부터 외식·공연 등 작은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 조정은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비내구재의 소매판매액 지수 또한 2.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 총지수가 1.5%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준내구재에는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인 의류·신발·소형가전 등이, 비내구재에는 그보다 짧은 음식료품·수도·취발용품 등의 재화가 들어간다.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작년 12월 1.0%·1.5% 각각 상승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 경기 부진에 탄핵 사태 등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가계가 소소한 소비를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준내구재 중에서는 의복 1.7%·신발 및 가방 8.7% 줄었다. 2월 내내 평년보다 출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겨울 옷도, 봄 옷도 덜 산 것으로 분석된다.

오락·취미·경기용품 소비도 6.5% 감소했다. 2013년 12월(-10.3%) 이후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추위에 공연연계는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비내구재 가운데에서는 음식료품 소비가 6.3% 줄었다.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율은 작년 2월(-6.6%)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각각 0.4%·0.8% 줄었고 차량 연료는 1.0% 감소했다.

보조금 집행 영향으로 내구재인 승용차 판매가 '반짝 반짝'(13.5%)한 것을 제외하면, 2월에도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는 소비 부진이 계속될 것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제조기업 60% 美관세 폭풍 직면... 배터리·자동차 타격

## 전국 제조업체 2107곳 조사

### 60.3% 미국 관세 정책 영향권 배터리 자동차 부품 업종 많아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10곳 중 6곳은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는 최근 전국 제조기업 2107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영향권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러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 △직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 및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

(21.7%)의 비중이 높았다. 이어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 기업'(17.9%) △미국에 부품 및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14.2%) △중국에 부품 및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13.8%) 순이었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 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69.6%)·의료장비(69.2%)·전기장비(67.2%)·기계장비(66.3%)·전자·통신(65.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6.7%)·중견기업(70.6%)·중소기업(58.0%) 순으로 영향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납

품 물량 감소(47.2%)'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간접 영향권에 속한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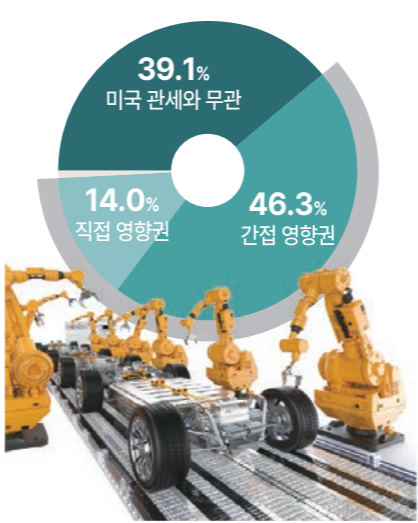
이러 △고용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24.0%)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하락(11.4%) △부품·원자재 조달방 조정(10.1%) △납품단가 하락(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 상황에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이다. 관세에 대한 대응 현황을 묻자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비용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인 기업이 74.5%였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응책인 '현지 생산이나 시장 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0.8%였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 같은 중소기업의 대응 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 계획이 없다'(24.2%)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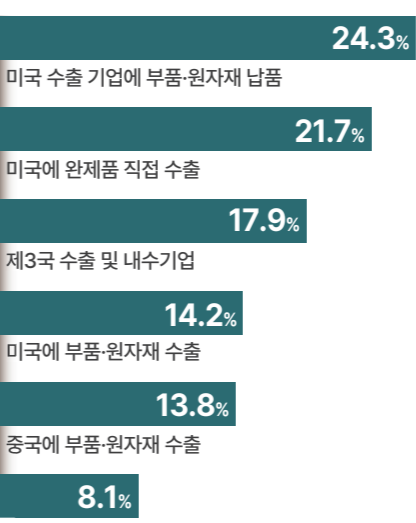
## 미국 관세 영향권 기업 비중과 기업유형별 구성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 영향까지 더해 경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



미국 수출 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

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해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최 광 저음

The BUCK STOPS here!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조지 워싱턴! 콘라트 아데나워! 리관유! 사카모토 료마! 에이브러햄 링컨!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키스 조셉! 로널드 레이건! 박정희! 전두환! 김재익!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덩샤오핑! 토머스 제퍼슨!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 태종 이세민! 요시다 쇼인! 후쿠자와 유키치! 관중

북앤피플

##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조지 워싱턴! 콘라트 아데나워! 리관유! 사카모토 료마! 에이브러햄 링컨!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키스 조셉! 로널드 레이건! 박정희! 전두환! 김재익!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덩샤오핑! 토머스 제퍼슨!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 태종 이세민! 요시다 쇼인! 후쿠자와 유키치! 관중

북앤피플 (02-2277-0220)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